

5월 임실 방문객 '역대 최고'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5월 방문객 102만1608명 집계...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가정의 달인 5월에 역대 최대 관광객이 임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 수는 102만16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통계가 잡힌 2018년 이후, 월 단위 임실군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89만9천명이 방문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에서도 무려 14%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금까지 월 단위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2023년 치즈축제가 열린 10월 한 달간의 101만381명을 넘어선 역대 최고 수치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임실방문의 해와 더불어 5월 전국적인 관광지 인기 끌고 있는 목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에 오수의견관광지에서 열린 오수의견과 함께하는 임실N페스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어린이날 등 다채롭고도 색다른 임실군민의 행사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한 황금연휴 기간 목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관광지에 14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주었고, 특히 이 기간 열린 페스타에 8만2000여명이, 어린이날 행사에 열린 임실치즈테마파크에 3만5000여명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가정의 달인 5월에 역대 최대 관광객이 임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목정호 출렁다리 인파.

의 관광객이 찾았다. 이후에도 목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에 핀 작약꽃과 꽃양귀비 등 봄꽃들의 향연과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성수산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 효과가 두드러졌다.

무엇보다도, 올해 새롭게 신설된 군청 홍보담당관의 전략적이면서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군은 방송과 신문, 통신, 인터넷 등 기존 미디어 홍보에 주력하면서도 SNS 홍보를 더욱 강화했다. 행사는 물론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참신한 사진과 숏츠 영상을 게재하여 관광객의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냈다.

실제 최근 목정호 작약밭과 치즈테

마파크 장미원 등 봄꽃 명소 콘텐츠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누적 조회수 31만회를 기록했고, 숏츠 영상은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11만회, 좋아요 855개를 기록하며 강한 파급력을 입증했다.

군은 오는 연말까지 임실N치즈축제, 산타축제 등 대표 축제의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내 천만 관광을 실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이 관광도시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천만관광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천만관광 실현을 위해 더욱더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업무추진계획 청취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가 제273회 정례회 기간 남원시로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손중열 위원장(사진)은 남원다움과 남원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은 천년고도 남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성에 힘써주길 당부하고, 오창수 부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행복누리센터는 시간제 보육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길수 의원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은 수급권자가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인지 대상 맞춤형으로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오동환 의원은 동부노인복지관은 은수 문제나 노후된 시설 보강 등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의원은 민원실에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나 QR코드 안내문 등 편의성을 향상시켜 줄 것을 주문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미선 의원은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성과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생활지원사 간담회 열고 소통 나서

남원시는 16일, 동부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214명을 초청해 '2025 춘향애! 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시정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건의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남원시 홍보영상 시청과 시정 주요사항 설명, 생활지원사와의 친밀관광 실현을 위해 더욱더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의 품격이자, 사람 중심 행정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생활지원사 여러분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종균보급기관 '우뚝'

농식품부 주관 '중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 8년 연속 선정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중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의 종균보급기관으로 8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성과는 진흥원이 다년간 축적해온 발효미생물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 그리고 순창군의 전통식품 산업 육성 의지가 한데 모인 결과로 평가된다.

중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다.

외국산 종균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고유 토착 미생물 자원을 활용해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된장, 고추장, 간장, 식초 등 한

국 고유 발효식품의 고급화와 안정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내 발효식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장류 및 식초 제조기업 18개소를 대상으로 종균 보급은 물론 발효기술 지도, 품질 분석, 공정 개선 등 현장 맞춤형 종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흥원은 단순 종균 보급을 넘어 제조 현장 적용 가능한 발효기술 컨설팅, 공정 표준화, 제품 안정성 확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일관된 노력은 현장 신뢰를

높이고 중소 발효식품 기업의 기술 기반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사업 성과를 정리한 '중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 백서', 종균 사용을 쉽게 안내하는 '종균사용설명서', 그리고 '전통장류 제조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발효식품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원서 제공과 컨설팅 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오랜 기간 쌓아온 연구 역량과 기업 협업 노력으로 전통식품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왔다"며 "앞으로도 순창이 전통 발효식품 산업 기술의 중심지이자 세계 시장 진출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맞아 캠페인 펼쳐

순창군이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주민들의 구강건강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16일 순창읍 재래시장에서 열린 캠페인은 '80년 환개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주제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치과공중보건의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과 치주병 상담을 실시했으며,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시연하며 안내하고, 구강용품과 홍보물, 리플렛을 배포해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집단급식소 15곳 대상 집중 위생 점검 실시

남원시는 최근 기온 상승과 장마철이 겹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

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와 50인 미만 급식시설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민호 위생안전팀장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와 식재료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지역자활생산품 시·군 순회 장터 진행

임실군이 지난 12일 군청 로비에서 '2025년 지역자활생산품 시·군 순회 장터'를 열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홍보 및 판매했다.

지역자활생산품 순회 장터는 전북관려자활센터 주관으로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을 전시·판매·홍보하는 행사로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자활생산품 판매 촉진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자활 욕구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지역 7개 지역자활센터의 14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터에서는 생활용품을 비롯해 농특산물, 전식가루, 커피,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였고, 올해 장터에서는 처음으로 3개 사업단에서 만든 반려동물 상품이 전시되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임실지역자활센터는 카페보네 사업단이 참여하여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였으며, 다음 연도 순회 장터부터는 영농시랑사업단의 양배추, 고춧가루와 같은 농산물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

임실군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육회, 김밥 등을 판매하는 식품업자 20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업소를 방문해 재료의 위생적 관리 실태에 대해 일고부터 보관·조리 등 현장 진단을 시행하고, 미생물 오염 측정기(ATP)를 활용해 종사자의 손 및 조리 기구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종합적인 위생 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맞춤형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영업자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시설 위생적 관리 및 식재료 보관 방법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